

中國의 當代新聞發達五十年史(1949~2000)

李 磊

중국 광파학원 교수

1949년 중국공산당이 새 중국을 건립한 이래, 중국의 신문업은 새로운 단계로 돌입했다. 중국 공산당의 전국적 위세로 인해, 공산당신문 선전체계는 새 중국의 신문업의 주체역량으로 되었다. 아울러 신문은 중국 공산당의 신문방송업 중에서 줄곧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였고, 중국공산당의 신문방송 선전의 주요한 도구였다.

신문 자체의 체제 발전의 궤적으로써 새 중국 50년간의 신문발전 진행과정을 구분해 본다면, 1949년부터 2000년까지의 50년간 — 당대 중국의 신문을 대체로 3개의 발전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 3개의 발전단계는 각각 중국공산당 신문체계의 확립시기(1949. 10~1956. 5); 중국공산당 신문체계의 ‘좌경’ 정치화 시기(1956. 6~1976. 10); 중국공산당 신문체계의 ‘2원화’시기(1976. 10~2000)이다.

1949년 10월부터 1956년 5월은 중국공산당 신문업의 첫 번째 발전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중국공산당 신문은 전국적인 선전주체도구로 되었고, 따라서 중국공산당 신문은 주도적인 매체로서 자리매김했다. 동시에 이 시기는 또 중국공

산당 신문이 전쟁 중의 군사무장투쟁과 적대계급과의 정치투쟁을 위한 선전매체로부터, 새로운 시기의 평화와 경제건설을 위한 국가조직사업을 위한 선전매체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 중국신문의 주요발전내용 중의 하나는, 예전에 전국의 각 해방구에 무질서하게 분산되어 있던 신문들을 중앙(中央), 성시(省市), 지구(地區) 등 3등급의 수직적인 구조에 따라 조직적이고 통일된 중공신문체계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체계가 형성되는 가운데서, 예전의 중공중앙화북국(中共中央華北局) 기관지였던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전국 최고급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되었고, 기타 해방구의 중공기관지들도 각 성, 직할시의 당위원회(黨委) 기관지로 되었으며, 그 이전에 당 기관지가 없었던 지구와 성(省)들에서도 잇따라 당 기관지들을 창간하였다. 그리하여 중공중앙기관지, 성·직할시 당위원회 기관지, 지구 당위원회 기관지로 된 3등급의 구조적이고 전국적인 당기관지 체계가 형성되었다.

중국신문 주요 발전내용의 두 번째는 중앙급(中央級)의 여러 종류의 군중단체 신문이 창간된 것이다. 노동자신문의 최고급 신문이며 전국 총공회의 기관지인 《로동자일보(工人日報)》, 청년신문 즉 중국신민주주의 청년단 기관지인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 소년들을 상대로 한 《중국소년보(中國少年報)》, 부녀들을 상대로 한 《중국부녀보(中國婦女報)》, 중쏘우호협회총회에서 주관하는 《중쏘우호보(中蘇友好報)》 등등의 신문들이 연이어 창간되었다. 이러한 신문들도 군중단체조직 공산당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으며, 각각 여러 계층의 독자를 위하여 발행되었고, 군중단체 신문 역시 중앙·성과 시·지구 등 3등급의 수직적 신문체계를 이루었다.

전국 신문발전의 세 번째 주요내용은, 영향력 있는 몇 개의 주요 민주당파신문들을 창간, 인수한 것이다. 그 중 비교적 유명한 것은 중국민주동맹 중앙기관지 《광명일보》, 지식인들을 주요독자로 하는 상해의 《문회보(文匯報)》, 독자경영신문이며 상업금융뉴스와 국제뉴스를 주로 다룬 《대공보(大公報)》 등이다.

전국 신문발전의 네 번째 주요내용은, 중앙정부 각 부서에서 창간을 주최하는 전문신문을 창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중앙인민정부 철도부에서 창간 주최한 《인민철도보(人民鐵道報)》, 중앙인민정부 위생부에서 창간 주최한 《건강보》 등이며, 이러한 신문들은 전문신문 체계를 이루었다.

이외, 소수민족자치구, 각급 중국공산당 당위원회에서 창간한 일련의 소수민족

문자의 신문, 예를 들면 《내몽골일보》(몽골어), 《연변일보》(조선어), 《신강일보》(위글어, 하사크어, 몽골어), 《서장일보》(티벳어) 등이다.

이렇게 하여, 새 중국 신문발전의 제1단계에서 중국공산당은 당기관지를 핵심으로 하고 각종 군중, 당, 단조직 신문과 전문신문, 민주당과 신문을 보충으로 하는 신형의 신문 군체(群體)를 이루었다. 이러한 신문 군체는 “3등급 수직구조와, 통일관리”하는 형식으로 존재하며, 당을 핵심으로 한 소유제의 “일체화” 경영색채를 띠었고, “계획통일”이라는 여론선전 특징을 나타냈다.

1956년 6월부터 1976년 10월까지는 중국공산당 신문의 제2발전단계이다. 이 단계의 주요한 특징은 중국공산당 신문체계가 제1단계에서의 국가경제 건설과 문화교육의 선전수단의 기능에서, 당내와 국내 정치노선 투쟁을 위한 권력수단으로 탈바꿈하였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신문매체는 중공의 “좌경”정치노선 아래에서 체제상으로 독재전제적 색채를 명확히 드러냈으며, 그 후기의 10년 “문화대혁명”운동 중에서 파시즘 독재선전 성질의 여론도구의 성격을 짙게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 20년의 발전기간에 중국공산당 신문은 네 차례의 중대한 정치운동을 겪었다. 그것은 1957년의 “반우파”투쟁, 1958년에 시작한 “대약진”운동, 1962년에 시작한 문예비판운동과 1966년에 시작하여 10년간이나 지속되었던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다. 이러한 정치운동의 여론선전 붐 속에서 중국공산당 신문은 체제성의 결함을 확연히 드러내게 되었고, 중국의 현대화 건설과 인민대중의 정치, 경제생활에 거대한 손실을 안겨주었다.

1957년 6월에 시작한 “반우파”투쟁은 중국공산당이 신문을 이용하여 전개한 한 차례의 대규모 정치운동이다. 이 운동이 시작되자 중공은 주동적으로 신문을 통하여 광대한 군중과 당 외 민주인사, 지식인들이 중국공산당의 통치에 대하여 비평과 수정을 가하는 것을 고무하였으나, 그 후 당내, 당외로부터의 비평적인 의견들이 속출하자, 공연히 중국공산당에 대하여 선의적인 건설적 의견을 한 민주인사와 청년지식인들을 반혁명으로 내몰아 “우파분자”라고 하면서 전국적인 반우파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압박 받고 비방 받는 계급으로 전락하게 하였고, 따라서 중공의 모든 신문과 당 간행물들은 일제히 상급의 착오적인 명령을 집행하여, 조국을 열애(熱愛)하고 중국공산당을 열애하는 수많은 지식인들을 사회 밑바닥으로 몰아넣었다.

1958년의 “반우파”투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되어, 중국공산당 신문은 또 착오적인 노선의 지도 아래에서,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회 운동의 바람을 일으켰다. 소위 “대약진운동”은 농공업생산의 객관적 법칙을 위반하고, 인간의 주관적 능동성을 편면적으로 강조하여 농공업 생산활동에 있어서 “많이, 빨리 하는 것”을 강조하여, 고속도 발전을 추구했던 착오적인 운동이다. 당시 중국공산당 신문은 통일적이고 압도적인 여론의 목소리로 전국에 “대약진운동”을 일으킬 것을 선동하였다. 결과 1960년의 자연재해시, 전국에서는 기아로 죽은 사람이 3천여 만명에 달하였고, 엄청난 사회비극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공산당 신문은 허풍과 가짜 보도를 고무 격려하였던바, 사회비극을 초래하는 데 있어서 밀어붙일 수 없는 엄중한 책임을 졌다.

“대약진”의 비극이 끝난 후 중국공산당 신문은 결코 “좌경”의 착오적인 지도 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다만 사업의 중점을 농공업생산 영역에서 문화의식 형태영역으로 옮기었다. 1962년, 중국공산당 주석 모택동은 중공제8기10중전회에서 “계급투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리면서, 의식형태 영역에서의 계급투쟁을 진일보 전개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신문 선전에 있어서 대규모로 의식형태에 대한 비판운동이 전개되었다.

철학, 경제학, 역사학에 대한 “좌경”비판은 저명한 철학자 양헌진, 경제학자 손치방, 역사학자 전백찬·오함 등에 대한 주된 비판이다. 이러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식의 여론비판은 그 영역의 학술연구에 대하여 엄중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비판은 문예 예술면에 대한 비판들이다. 비판의 대상은 장편소설 <류지단>, 영화 <북국강남>, 희곡 <이혜낭>과 역사극 <해서의 파직>이었는데, 특히 오함이 편곡한 희곡 <해서의 파직>에 대한 비판은 저명한 신문사건이었으며, 그 후 10년 문화대혁명의 정치적 도화선으로 되기도 했다.

10년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국 신문업은 이 한 차례의 정치적 운동 가운데서 큰 “역할”을 하였는데, 중국 문화대혁명 중의 개개의 주요사건과 발전단계가 모두 그 시기의 신문 선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신문언론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문화대혁명에서의 “문화”색채는 없었을 것이다.

문화대혁명 중에서의 중국공산당의 신문은 그 표현양상에 따라 3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 3단계로는, 문화대혁명 초기의 신문선전 “점화(点火)”시기, 문화대혁명 중기의 “문화 대비판” 시기, 문화대혁명 후기의 “우경 번안풍 반격” 시

기 등이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폭발은 적어도 그 형식상에서 볼 때, 당시 신문지상에서 “중두(重頭)”이론을 비판하는 문장들로부터 “점화” 발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점화”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편은 1965년 11월 10일, 모택동 부인인 강칭, 상해시 위원회의 두 “좌파” 사상가 장춘교, 요문원이 상해 《문화보》에 발표한 “신편 역사극 <해서의 파직>을 논함”이다. 이 문장으로 하여 원래 팽진을 중심으로 하였던 중공중앙 ‘문화혁명소조’는 강생, 강칭, 요문원, 진백달 등 유명한 ‘좌파’인물들로 된 문화혁명 지도소조로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상술한 이 문장을 문화 대혁명의 도화선이라고 한다. 이외, 다른 일련의 “점화”문장으로는 1966년 5월 9일 《해방군보》에 발표한 강칭(高炬라고 서명함)의 문장 <반당복회주의(反黨復會主義)에 대하여 비판하자>와 <광명일보>에 발표한 <눈을 바로 뜨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자>, 《해방군보》와 《광명일보》에 동시에 발표한 “등괄의 ‘연산야화’는 반당 사회주의의 검은 글이다”라는 제목의 문장 등이다. 이러한 비판 글들은 북경시 위원회 개편 전야에 발표되어 여론으로 형성되었고 따라서 원래의 북경시 주요한 지도자들을 파직케 하였다. 또 다른 일련의 “점화”문장들은 1966년 6월 1일 진백달이 집필하고, 모택동이 심의 통과하여 중국공산당 제1기판지 《인민일보》에 발표된 사론 ‘모든 우귀사신(牛鬼蛇神)을 소탕하자’는 문장과 그 이튿날 발표된 ‘북경대학 일곱 명 동지(同志)의 대자보가 하나의 큰 음모를 밝힌다’, 그리고 중앙문화혁명소조가 인민일보 논설위원의 이름으로 발표한 사설 ‘북경대학의 한 장의 대자보를 환호한다’라는 문장이다. 최고지도자층에서 발표한 이러한 혁명점화 논조들은 전국적으로 강렬한 반응을 일으켜, 각지의 ‘조반파(造反派)’들을 부추겼으며, 무산계급의 문화대혁명이 중국 땅에서 전면적으로 확산하게 하였다.

신문에 발표된 “점화”논조들이 전국적으로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것 외에도, 문화대혁명 시기의 신문선전으로 하여 중국에는 전에 없었던 모택동 주석에 대한 개인숭배의 물결이 범람하게 되었고, 아울러 그 시기 신문 편집분야의 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개인숭배 선전운동에 있어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첫째 수법은 바로 매일의 신문 헤드라인에 모택동 어록을 실는 것이며, 동시에 신문에 실린 모든 문장이나 뉴스보도 중 일단 모택동 어록이 있으면 짙은 검은색 글자로 표시하여 모택동에 대한 존경과 숭상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편집 배열형식은 나중에

중국특색의 “문화대혁명” 어록신문 형식을 형성하였다. 다른 하나의 수법은, 신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모택동 주석의 큰 폭 사진을 실은 것인데, 후에는 신문의 한쪽을 거의 다 차지하는 대형 사진을 실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동시에 모 주석에 관한 뉴스보도는 늘 붉은 색 큰 글자체로서 제목을 달아주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수법은, ‘빨리, 제때에’ 모 주석의 언행활동에 대한 보도를 함으로써, 모 주석은 전체 당과 인민의 위에 선 ‘위대하고 영명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한’ 지도자임을 강조하였다.

문화대혁명 초기의 신문 선전활동의 하나의 특이한 점은—중양급의 권위 신문 간행물 ‘2보1간(2報1刊)—두 개 신문과 하나의 간행물’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2보1간’은 바로 중공중양기관지 《인민일보》, 해방군 총정치부 기관지 《해방군보》와 중공중양기관간행물 《홍기》잡지를 가리킨다. ‘2보1간’의 사설들은 전국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또한 전국인민들로 하여금 일제히 행동하도록 지휘하는 지휘봉이었다. 신문간행물이 전 사회적으로 일으킨 거대한 힘과 영향력은 다른 어느 시기에도 없었던 일이었다.

문화대혁명 중기의 중국공산당 신문은 주로 “대비판”을 통한 선전과 선동형식을 취하여 전반 사회운동에 대하여 큰 영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대비판”사조는 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967년 4월1일 《홍기》잡지 제5기에는 척분우의 <애국주의인가 아니면 매국주의인가—반동영화 ‘청궁의 밀사’를 논함>이 발표되었고 뒤이어 전국의 신문들이 모택동 주석의 정적 유소기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조가 일어났다. 또 1967년 8월 1일 《홍기》잡지에는 두 편의 사설을 실어 “군내의 한줌도 안 되는 자본주의파를 몰아내자”고 호소했는바 전국적으로 군사기관들을 휩쓰는 사조가 일어났으며 각지에서는 무장투쟁과 ‘전면대전’의 위기 국면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1967년 11월 6일 중양 ‘2보1간’ 편집부는 “10월 사회주의혁명의 길을 따라 전진하자”는 문장으로 모택동의 “무산계급 전제정치 아래에서 계속 혁명한다”는 착오적인 이론을 선전하였다. 그리고 1968년 10월 16일 《인민일보》는 《홍기》잡지 제4기의 사설 “무산계급의 신선한 혈액을 흡수하자—정당사업 중의 하나의 중요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문장을 실어 유소기 동지에 대하여 모욕과 비방을 하고 비판을 가하였으며 그 후의 극좌적 노선을 위한 일련의 착오적인 이론기초를 마련하였다.

신문의 이러한 “대비판” 문장들을 제외하고 문화혁명 중기의 신문들은 신문의 “전형(典型)”을 뽑는 방식으로 극좌적 착오노선을 선양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뽑힌 “전형”들은 대다수가 가짜이고, 꾸며낸 것이며, 각 계급의 정치선전 목적을 위하여 뽑은 것들이다. 문화대혁명 중기의 신문 “전형”으로 뽑힌 인물들은 이리하다. 산서성 대재 농촌정치노선투쟁의 “전형”, 1973년에 백지 시험지를 내서 ‘백지영웅’으로 된 요녕성의 장철생 “전형”과 사회 여러 분야의 소위 “정치노선투쟁” 수준을 갖춘 여러 부류의 “전형”업체들이었다. 문화혁명의 극좌파들은 이러한 “전형”을 이용하여 전국적인 선전을 하였고 정치운동을 지도했던 것이다.

문화대혁명 후기에 와서도 중국공산당의 신문들은 계속하여 극좌파들이 운영해 나가고 있었으며 “대비판”과 신문 “전형”을 뽑는 형식으로 그들의 권력을 다져나갔는데, 극좌파들과 주은래 총리, 등소평 부총리와의 정치투쟁과정 중에서 표현된다.

1973년부터 모택동은 전당 전국적으로 “비림비공(批林批孔)”운동을 호소하였고, 신문에는 중공의 “극좌파”들이 이 운동을 빌려 정적 주은래를 공격하는 바람이 일어났다. 그 결과 전당과 전국의 주요신문들에는 옛사람을 빌려 현대의 정적을 비판하는 “은유문장”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러한 은유문장들은 “4인방” 극좌파가 만들어낸 문화대혁명의 특수한 신문 문체로 되었으며 “4인방”이 정치적 음모를 꾸미고, 상대 적을 공격하는 비열한 무기로 되었다.

그 외, 극좌파는 전국의 주요신문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이른바 “비림비공”의 정치투쟁을 진행하며 “전형”들을 선전하였다. 예를 들면, 북경의 13살 된 1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편지와 일기, 하남성에서 중학생이 공부 싫어 자살한 사건 — “마진부 사건”, 상해 조선공장의 “풍경윤후” 사건 등등이다. 중국공산당 극좌파들은 또 4대 권위적 혁명 대비판 습작소조 — “북경대학, 청화대학 대비판 소조”(양효‘梁效’라고 일컬음), “상해시 위원회 습작소조”, “문화부 습작소조” 및 “중앙당학교 습작소조”를 조직하고 장악하였다. 이러한 소조들은 끊임없이 각종 필명으로 전국의 주요한 신문에 많은 정치문장과 논설을 발표하여 전국인민의 사상과 여론을 통제하고 장악하였으며, 아울러 중국 신문사상의 기이한 현상 — “작은 신문은 큰 신문을 빼끼고, 전국이 양효를 읽는다” — 이 형성되었다.

1974년 등소평은 중병을 앓고 있는 주은래 총리를 대신하여 총리업무를 보았으며 중국공산당 사업을 주도하게 되었다. 등소평은 전국의 혼란한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엄중하게 파괴된 경제질서와 과학기술 질서를 바로잡는 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 자리에 놓을 것을 제창하여 극좌파와 모택동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그

리하여 전국신문에는 “우경 번안풍을 격파하라”는 주제의 정치적 폭풍이 일어났다. 1976년 4월, 주은래 총리를 추도하며 “4인방”의 전제폭정에 반항하는 “천안문 4·5 사건”이 탄압된 후 등소평도 총리직에서 파직 당하게 되었고, 급진적 극좌 파들은 동년 10월 체포되기 전까지 줄곧 전국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1976년 10월에서 현재까지는 새 중국 신문사업 발전의 제3단계이며, 중국 신문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새로운 형식으로서의 변혁을 가져온 새로운 시기이다. 이 시기 신문업 발전의 주요한 특징은, 중국신문이 이전의 중국공산당 당 기관지, 당 간행물의 단일 지령형 기능에서 발전하여 다층·다방면의 신문구조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며, 위에서 아래로 이르는 당의 각급 조직 지령을 따르던 신문 부류와 시장의 자유경쟁 법칙을 따른 “상업성 신문”의 두 부류 신문이 병존하는 국면이 나타난 것이다.

중국 신문매체업은 제3발전단계에서 제도 자체와 기능의 변화에 따라 두 개의 발전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 발전단계는 1976년 10월 중국공산당이 극좌파 대표 “4인방”을 무너뜨린 때로부터 1989년 6월의 “정치풍파”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도 중국공산당 당 기관지를 핵심으로 하는 기관지들이 전국 신문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 공화, 부녀연합회, 공청단 등 당의 하층조직 신문과 경제, 정치, 문예, 교육, 과학기술류의 신문들이 큰 발전을 가져왔다. 이와 동시에 시장경제체제의 영향으로 대·중형 도시에 주로 나타났던 문화예술, 생활복지, 위생건강, 체육문학, TV방송, 도시 석간 등 여러 부류의 신문들이 크게 쫓기하였고 수많은 독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러한 신문은 절대 다수가 자체로 수익지출을 관리하고 시장의 법칙에 따라 신문업을 유지해 나갔으며, 거의 다 수입을 올리거나 적어도 수지균형을 이루었다. 시장의 법칙과 시장의 제약을 크게 받는 이러한 신형 신문매체들은 당의 수직적인 지령에 따른 기관지들과는 다른 새로운 신문 유형이었다.

제3발전시기의 첫 단계에 중국신문은 전국의 주요한 당 기관지들에서 중대한 정치토론—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다.—을 벌여 중요한 영향력을 일으켰다. 이 토론에는 《광명일보》를 발단으로 하여 당의 중요한 기관지 《인민일보》, 《해방군보》, 《홍기잡지》와 기타 도시의 당 기관지, 당 간행물들이 참가하여 이 이론에 대한 뜨거운 변론을 하였다. 이 변론을 통하여 전국

인민의 사상은 통일을 가져왔고, 1978년 12월 말, 중공11기3중전회에서는 화국 봉을 지도자로 한 과도기 정권은 새로운 지도자들로 바뀌어, 중국은 등소평 동지를 지도자로 한 개혁개방과 새 정권으로 되었다.

11기3중전회 후의 중국신문업은 갈수록 자주권을 넓혀갔으며, 개혁개방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인 선전을 하였고, 신문에 대한 인민의 수요도 대폭으로 증가하였는바 거의 모든 신문이 신속히 발전하여 중국 신문업은 고속성장의 시기로 들어섰다. 1988년 말, 중국에서 정식으로 공개 발행한 신문은 무려 1, 579종에 달하였고, 석간 신문도 41종에 달하였다. 그러나 1986년과 1989년 당 신문들은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에서 또 우경 자산계급 자유화현상과 자산계급 세력에 대하여 집중적인 비판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해시 위원회는 1989년에 저명한 자유주의 신문 《세계경제도보》에 발행 정지를 하게 되었다. “4가지 기본원칙”(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길을 견지하며, 맑스 레닌주의 지도사상을 견지하고, 무산계급 정치를 견지한다)은 가장 정확하며 또한 뛰어난 수 없는 신문 선전 원칙으로 되었다.

중국신문업 제3발전시기의 두 번째 단계는 1989년 6월 “천안문 정치풍파”의 시작으로부터 현재(2001년 6월)까지이다. 총체적인 발전추세는, 신문의 정치보도에 있어서 보수성과 신중성, 그리고 경제·사회생활 보도에 대한 개방을 보였고 아울러 최종적으로는 당 기관지, 당 간행물을 주요로 한 선전 지도성 신문과 도시 대중신문을 주요로 한 시장화체제를 위한 오락성 신문의 두 부류가 형성되었고, 또한 위에서 아래로 이르는 정치지령형 신문과 아래서 위로 이르는 경제지령성 신문의 “2원” 병존 국면이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신문은 결코 대립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화 신문은 자주적 경영을 하지만 조직 임명에 있어서는 여전히 당의 지시와 제약을 받았다. 사실상, 많은 시장형 신문은 정치형 신문(大報) 하의 “소신문(小報)”이거나 또는 정치형 신문과 함께 하나의 신문업 그룹에 속하여 있는 신문들이다. 양자는 각각 중국공산당 신문업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두 가지 신문유형이라는 것이다.

1989년 이후, 신문은 정치상에서 많은 통제를 받았고, “정면선전”을 위주로 하였으며, 따라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은 여전히 심도 있게 전개되었는데, 특히 1992년 봄, 등소평의 “남방시찰” 뒤 중국은 경제 대개방, 대발전의 시기로 들어서게 되었는바 신문업에서도 신문그룹 출현과 시장형 신문의 대발전을 이루었다. 1999년 말 통계한 2,038종의 신문 가운데서 절대 대

부분은 시장화와 자주경영의 대중화 신문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문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영향력은 당의 정치형 신문과는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가 없다.

등소평의 “남방시찰”은 개혁개방 정신을 격려하였는바, 개혁개방 정신의 격려 하에 중국 남부의 광둥성 광주시 당 위원회 기관지 《광주일보》는 출신수범하여 《광주일보》 신문업 그룹을 창립하여 시장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뒤이어, 광둥성 위원회 당 기관지 《남풍일보》 역시 《남풍일보》 신문그룹을 창립하였다. 남방 성(省)의 선두역할로, 1996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5년 사이 중국 대륙에는 상해의 《신민문화보》 신문그룹, 《해방일보》 신문그룹, 북경의 《광명일보》 신문그룹, 《경제일보》 신문그룹 등 15개 대형 신문그룹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신문그룹은 소수의 정치형 대신문을 핵심으로 하고, 그 아래에 각 부류의 소신문을 두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였으며, 신문의 판매시장을 확대하고 사회에서 신문의 위상을 수립하였는바 당대 중국 신문업 발전의 새로운 경지에 올랐다.

총괄해 보면, 중국 당대 신문사업이 형성한 “이원화”국면은 중국공산당이 정치상에서는 정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행하고, 경제상에서는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한 결과이다. 독자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정치형 대신문들은 당 위원회 선전부의 지령성 통제하에 정치성 “정면선전”을 진행하는 동시에 재정면에서는 같은 신문그룹, 계열 내에 있는 기타 소신문의 경제적 뒷받침을 받아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신문의 보호 하에 있는 같은 계열의 소신문들은 정치적인 제도장치를 위반하지 않는 원칙 하에서 같은 지역과 타 지역의 기타 신문그룹들과 경쟁을 하는 시장경제원리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 두 부류 신문사업의 전망과 상호 대응 추세는 중국의 향후 발전에 따를 것이다.

当代中国五十年报刊发展简史

(1949——2000)

自 1949 年中国共产党建立新中国以来，中国的新闻事业就开始了一个新的发展阶段。由于中国共产党的全国性领导地位，中共的新闻宣传体系变成新中国新闻事业的主体力量。而在中国共产党新闻事业中，报刊一直占据着主导性的地位，是中国共产党新闻宣传的主体工具。

如果从报刊自身体制发展的轨迹来对新中国五十年间的报刊发展进行阶段性划分的话，从 1949 年到 2000 年五十年间，当代中国的报刊可以大致地划分为三个阶段性的发展时期：中国共产党报刊体系的确立时期（1949 年 10 月——

1957 年 5 月）；中国共产党报刊体系的“左倾”政治化时期（1956 年 6 月——

1976 年 10 月）；中国共产党报刊体系的“二元化”时期（1976 年 10 月——2000 年）。

1949 年 10 月到 1957 年 5 月，是中国共产党新闻事业的第一个发展阶段。在这一阶段中，中国共产党的报刊成为全国占统治地位的新闻宣传主体工具，中国共产党的新闻事业成为主流性的统治媒体。同时，这一时期

也是中国共产党报刊从以往的战争年代中主要为军事的武装斗争和与敌对阶级政治斗争服务的宣传媒介，相应地转变为服务于和平年代新的经济建设与国家组织工作的时期。

这个时期的中国报刊的主要发展内容之一是统一了以往按照不同的区域、分散在全国各地的中共各解放区的报刊，把它们按照中央、省市、地区三级垂直的结构，组织成为一个统一的中共报刊体系。在这个新的体系之中，原来是中共中央华北局机关报的《人民日报》上升为全国最高级别的中国共产党的中央委员会机关报，而其它解放区的中共机关报刊则分别成为各省、直辖市的党委机关报；在那些以前没有中共报刊的地区和省份，则迅速地组建了当地的中共报刊，最终形成了一个从中共中央机关报——省委、直辖市党委机关报——地区党委机关报三级结构的全国党报系统。

全国报刊发展的第二项主要内容是组建了中央级别的各种群众团体报刊。工人报刊的最高级报纸是《工人日报》，是全国总工会的机关报；青年报刊则是中国新民主主义青年团的机关报《中国青年报》；针对少年人的《中国少年报》；针对妇女的《中国妇女报》；中苏友好协会总会主办的《中苏友好报》等等报刊纷纷创立。这些报刊受中共在这些群众团体中党组的领导，分别为各自不同的读者对象群体服务，并且也建立起来了一个从中央、省市、地区的三级垂直型报刊体系。

全国报刊发展的第三项内容是建立、接收了几家重要的、有影响性的民主党派报刊，比较有名的如中国民主同盟中央机关报《光明日报》；以知识分子为主要读者对象的上海《文汇报》和私营的、注重商业金融消息和国际新闻的《大公报》。

全国报刊发展的第四项内容是创办了一批由中央政府各个部门主办的行业性报刊，如中央人民政府铁道部主办的《人民铁道报》；中央人民政府卫生部主办的《健康报》等，形成了专业性报刊系统。

另外，在少数民族自治区，各级中共党委还创办了一批少数民族文字的报刊如《内蒙古日报》（蒙文）；《延边日报》（韩文）；《新疆日报》（维吾尔文、哈萨克文、蒙文）；《西藏日报》（藏文）等。

就这样，在新中国报刊发展的第一阶段中，中国共产党很快建立起来了一个以党报为核心、以多种群众党团报刊和专业报刊、民主党派报刊为附庸的新型报刊结构体。这个报刊新闻群体以“三级垂直、统一管理”的结

构形式存在，具有强烈的党国所有制的“一体化”经营色彩和“计划统一”的舆论宣传特点。

从1956年6月到1976年10月，是中国共产党报刊的第二个发展阶段。这一阶段的主要特点是：中国共产党报刊体系日益从第一阶段的国家经济建设、文化教育的宣传指导工具转变为服务于党内国内政治路线斗争的权力工具。报刊媒体在中共“左倾”政治路线的指导操控下，展现了其本身体制性的独裁专制色彩，并在后期的十年“文化大革命”运动中，堕落成带有浓厚法西斯独裁宣传性质的舆论工具。

在这二十年的发展期间，中国共产党的新闻报刊经历了四次重大的政治运动，这就是1957年的“反右派”斗争；1958年开始的“大跃进”运动；1962年开始的文艺批判运动和从1966年开始、一直延续了十年之久的“无产阶级文化大革命”。在历次政治运动的舆论宣传鼓动中，中国共产党的新闻报刊展现了其深刻的体制性缺陷，对中国的现代化建设和人民大众的政治、经济生活造成了巨大的损害。

1957年6月份开始的“反右派”斗争是一次中国共产党利用报刊开展的一场大规模的、疾风暴雨式的政治运动。这次运动一开始，中共主动通过报刊鼓励广大群众和党外民主人士、知识分子对中国共产党的执政工作进行批评与指正，但随着大量来自党内的批评性意见的出现，中共开始利用新闻报刊“引蛇出洞”，然后在报刊上开展了一场全国性的反右派运动，把大批善意地向中共提出建设性意见的民主人士和青年知识分子打成了反革命的“右派分子”，使他们沦落成为社会中被压迫、受歧视的“异类”阶层。中共所有的党报党刊统一执行了来自上层的错误指令，把千千万万热爱祖国、热爱中国共产党的知识分子们打入了社会底层深渊。

1958年“反右派”斗争刚刚结束，中共报刊又在错误的路线指导下，掀起了一场“大跃进”的运动和人民公社化运动。所谓“大跃进”运动是指不顾工农业生产的客观规律，片面地强调人的主观能动性，片面地要求在工农业生产活动中“大干快上”，争取高速度的错误做法。当时的中共报刊利用统一的、压倒性声音鼓吹号召全国“大跃进”，结果在1960年的自然灾害时全国饿死了三千多万人，造成了极为严重的社会灾难。在这一灾难性的过程中，中共报刊系统率先鼓励“浮夸风”、在新闻报道中弄虚作假，负有不可推卸地重大责任。

在经过“大跃进”的惨痛历程后，中共报刊并没有从“左倾”错误指导路线中摆脱出来，只是把自己的注意力逐渐从工农业生产领域转移到文化意识形态领域之中。1962年，中国共产党主席毛泽东在中共第八届十中全会上发出了“千万不要忘记阶级斗争”的指示，强调要进一步展开意识形态领域里的阶级斗争，从而在当年的报刊宣传中产生了一场大规模的意识形态批判运动。

对哲学、经济学、历史学的“左倾”批判主要是针对着著名的哲学家杨献珍、经济学家孙冶方、历史学家翦伯赞、吴晗等人展开的，由于这种“一面倒”的舆论大批判，这几个领域的学术工作遭到了严重的打击并因此导致了大面积的倒退。

最引人注目的批判是在文学艺术领域里展开的，批判的对象是长篇小说《刘志丹》、电影《北国江南》、戏曲《李慧娘》和历史剧《海瑞罢官》，尤其是对吴晗编剧的《海瑞罢官》的批判，成为一个著名的报刊事件，并演变为引发中国当代史上著名的十年“无产阶级文化大革命”的政治导火索。

十年文革期间，中国报刊业在这场运动中扮演了一个重要的角色，可以说，中国文化大革命的每一个重要的发展阶段都是同当时的报刊新闻宣传活动密切相关的，没有报刊新闻界的积极参入，就没有这场政治运动的“文化”色彩。

中国共产党报刊在文化大革命中的表现拟可分为三个时期：文革初期的报刊宣传“点火”阶段；文革中期的“革命大批判”阶段和文革后期的“反击右倾翻案风”阶段。

中国文化大革命的爆发，起码在形式上是由于当时全国报刊的一系列“重头”理论批判文章的“点火”而掀起的，这批“点火”文章中最重要的一篇是来自1965年11月10日上海《文汇报》发表的、由毛泽东的夫人江青和上海市委的两个“左派”思想家张春桥、姚文元合伙炮制、姚文元署名的《评新编历史剧〈海瑞罢官〉》，由于这篇文章，中共中央原来以彭真为首的“文化革命小组”领导成员被更换了，康生、江青、姚文元、陈伯达等著名“左派”人物成为新的文革领导小组成员，人们普遍认为，这篇文章是引发文化大革命的导火索。第二组“重头”文章是1966年5月9日《解放军报》发表的江青主持写作、署名“高炬”的文章《向反党

复会主义的黑线开火》；《光明日报》发表的关峰化名“何名”的文章《擦亮眼睛、辨别真伪》；《解放军报》和《光明日报》同时发表的题为《邓拓的〈燕山夜话〉是反党社会主义的黑话》的批判文章，这一组批判文章为中共中央改组北京市委做了充分的舆论准备，原市委主要领导人被打倒了。第三组“重头”“点火”文章是1966年6月1日陈伯达主持写作、毛泽东审批通过并在中共党的第一机关报《人民日报》上刊登的社论：《横扫一切牛鬼蛇神》和第二天刊登的《北京大学七同志一张大字报揭穿一个大阴谋》的文章及中央文革小组以人民日报“评论员”名义发表的社论《、欢呼北大的一张大字报》。这几组来自最高领导层的革命点火文章很快在全国引起了强烈的反响，各地“造反派”闻风而动，无产阶级文化大革命在中国大地上全面展开了。

除了“点火”引发全国文化大革命运动以外，文化大革命时期的报刊第二个重要的宣传重心是掀起了一个前所未有的对毛泽东主席的个人崇拜狂潮，并对当时报刊编辑业务的发展留下了深刻地影响。

这场个人崇拜宣传运动的第一种常见手法是每天在报纸的报眼位置选登毛泽东的语录，同时在报纸刊登的所有文章和报道中把提及或引用的毛泽东语录都以黑体字方式排出，以示突出和尊崇，这种编排形式最后形成了一种中国特色的“文革”语录新闻报刊版式。第二种常见手法则是在报刊上醒目地刊登毛泽东主席的大幅照片，以至于最后演变成为刊登几乎整版的巨幅照片，同时经常用“套红”大字标题刊印的方法重点处理有关毛泽东主席言行的新闻稿件；第三则是经常“快速及时”、大力突出地宣传报道毛泽东个人的行止和讲话，突出毛泽东主席凌驾于全党之上的“伟大、光荣、英明、正确的领袖地位”。

文革初期的报刊宣传活动的-一个特点是：逐渐形成了具有极大舆论权威性的中央级权威报刊“两报一刊”——这就是中共中央机关报《人民日报》、解放军总政治部机关报《解放军报》和中共中央机关刊物——《红旗》杂志。“两报一刊”的社论、文章成为统一全国舆论和号召一致性行动的指挥棒，报刊对整个社会的巨大影响力达到了无以复加的地位。

文革中期的中共报刊事业主要采取了一种“大批判”的宣传鼓动方式来对整个社会运作进行强有力地影响，这种“大批判”浪潮主要有以下数次：1967年4月1日《红旗》杂志第五期发表的戚本禹的“大批判”文章

《爱国主义还是卖国主义——

评反动影片〈清宫秘史〉》，引发了全国报刊对中华人民共和国主席、毛泽东的政敌刘少奇的批判浪潮；1967年8月1日《红旗》杂志发表的两篇社论号召“揪军内一小撮走资派”，在全国引发了冲击军事机关的浪潮，造成了全国各地武斗升级和“全面内战”的危机局面；1967年11月6日中央“两报一刊”编辑部文章《沿着十月社会主义革命开辟的道路前进》宣传了毛泽东关于“无产阶级专政下继续革命”的错误理论；1968年10月16日《人民日报》转载《红旗》杂志第四期社论《吸收无产阶级的新鲜血液——

整党工作中的一个重要问题》对刘少奇同志进行无耻地诬蔑与批判，为极左路线奠定了一系列的错误理论。

除了报刊此类“大批判”文章外，文革中期的报刊还经常采用树立先进新闻“典型”的方式为极左错误路线服务，这些报刊树立的“典型”大多数是假的、捏造的、拔高的，是报刊为适应不同阶段的政治宣传任务而炮制出来的。文革中期报刊树立的“典型”主要有这样一些：山西大寨农村政治路线斗争的“典型”；1973年树立的辽宁省交白卷的“英雄”张铁生的“典型”和一大批各行各业具有“政治路线斗争”水平的各类“典型”任务、“典型”单位，文革极左派利用这些“典型”来指导全国的政治运动。

文化大革命的后期，中共主要报刊继续在极左派的操纵下运用“大批判”和树立报刊“典型”的方式来巩固和加强他们的权力，这主要表现在他们与周恩来总理和邓小平副总理的政治夺权斗争过程之中。

自1973年，毛泽东提出了全党全国“批林批孔”的号召，这在报刊上掀起了一股中共“极左派”借这一运动攻击政敌周恩来的狂潮，结果是在全党和全国主要报刊上出现了一大批借助古人来攻击现代政敌的“影射文章”。这种“影射文章”是中共党内“四人帮”极左派发明的一种“文革”报刊文体，它成为“四人帮”在政治上进行阴谋活动，攻击敌手的一种卑劣武器。

另外，极左派还利用手中掌管全国主要报刊的权力，在全国范围内树立了一批所谓“批林批孔”的政治斗争宣传“典型”，如北京一位十三岁的小学生写的信和日记；河南省发生的一起中学生厌学自杀事件——

“马振扶事件”；上海造船厂的“风庆轮号”事件等等。中共极左派还组织与掌握了四大权威性革命大批判写作小组——

“北京大学、清华大学大批判组”（化名为“梁效”）、“上海市委写作组”、文化部写作小组及中央党校的写作小组，这些小组不断地以各种笔名在全国主要报刊上抛出大批的政治文章和报刊社论，掌握与控制了全国民众的思想和舆论，并形成了中国报刊史上的一个“奇观”：“小报抄大报，全国看梁效”。

1974年邓小平主持中共中央的工作，替代重病的周恩来总理处理政务。邓小平坚持把恢复全国混乱的经济秩序和稳定遭受到严重破坏的教育战线、科技战线的任务放到了压倒一切性的首位，遂引起了极左派和毛泽东的不满，全国报刊又出现了一个以“反击右倾翻案风”为主题的政治风暴。1976年4月，在镇压了以悼念逝世的周恩来总理、反抗“四人帮”专制暴政的“天安门四、五事件”之后，邓小平又下台了，激进的中共极左派再次在全国执掌了权力——直到同年的10月被捕入狱。

从1976年10月到迄今，是新中国报刊新闻事业发展的第三阶段，也是中国报刊业飞跃前进、嬗变转型的一个新的时期。这一时期报刊业发展的主要特征是：从以往的中共党报党刊等单一指令型功能系统发展形成为多层次、多方面的报刊生存结构；出现了以往从上而下听从党的各级组织指令的报刊和遵从市场化自由竞争规律的“商业性报刊”两类并存的局面。

中国报刊传媒事业在第三个发展时期里，按照本身的制度与功能变化，又可以近似地划分为两个不同的发展阶段。

第一个发展阶段从1976年10月中共粉碎极左派代表“四人帮”到1989年6月的“政治风波”。在这一个时期里，以中共党报为核心的机关报继续占据着全国新闻宣传的核心地位，另外，工会、妇联、共青团等党的外围组织报刊，经济类、政法类、文教类、科技类报刊得到了很大的发展。与此同时，受市场竞争体制的影响、主要诞生在大、中型城市里的文化艺术类、生活服务类、卫生健康类、体育文摘类、广播电视类、城市晚（早）报类的报刊迅速崛起并很快在广大受众中赢得了欢迎。这些报刊绝大部分都是自负盈亏、独立核算、面向市场、基本都能够达到收支平衡或者略有盈余，成为以读者受众为“衣食父母”、受市场因素极大制约的新型

报刊传媒，形成了同主要受党的垂直统一政令领导机关报型宣传媒体相当不同的另一种报刊类型。

在第三发展时期的第一个阶段里，中国报刊所取得的第一个重大影响是广泛地在全国主要党报上进行了一项重大的政治讨论——实践是检验真理的唯一标准。这项讨论以《光明日报》为发起者，党的重要报刊《人民日报》、《解放军报》、《红旗杂志》和其它省市的党报党刊都参加了这场重大的理论大辩论。通过这场辩论，全国人民的思想得到了统一，以华国锋为首的过渡政权被1978年12月底召开的中共十一届三中全会成立的新领导班子所替代，中国形成了以邓小平为首的改革开放派新政府。

十一届三中全会后的中国报刊事业获得了越来越多的自主权，开始对改革开放政策进行全面的宣传，人民大众对报刊的需求大大提高了，几乎所有的报刊都快速发展，中国报刊事业进入了一个高速增长时期。到了1988年年底，中国正式公开发行的报刊共1579种，晚报41家。然而，在1986年和1989年，党的报刊系统在中共中央的领导下，又对右倾的资产阶级自由化现象和势力进行了集中的批判，上海市委在1989年还查封了著名的自由主义报刊，上海的《世界经济导报》。“四项基本原则”（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社会主义道路、坚持马克思列宁主义的指导思想、坚持无产阶级专政）成为新确定的、不可逾越的宣传原则和报道禁区。

中国报刊事业第三发展时期的第二个阶段从1989年6月的“天安门政治风波”开始到现在（2001年6月），总体的发展趋势是：报刊政治报道上的保守和谨慎和经济、社会生活方面报道的开放与发展，并最终形成了以党报党刊为主的指导宣传类报刊和以城市大众报刊为主体的市场化服务娱乐类报刊两大类型，出现了自上而下的政治指令型报刊和自下而上的经济指令型报刊“二元”并存的局面。不过，这两大类报刊类型并不是截然分离的，市场化报刊在业务上虽然自主经营，但在组织任命上仍受党的宣传部分的领导和制约。事实上，许多市场型报刊都是政治型报刊（大报）下的“小报”，或者政治性的大报和经营性的小报同属于一个报业集团或报系，它们是中共党的报刊群体中分别担负不同任务的两种报刊类型。

1989年以后，报刊受政治上的严格控制，以“正面宣传”为主，走向了无所作为的境地。但是，中国的改革开放仍然深入继续——特别是邓小平1992年春天“南巡”之后，中国进入了一个经济大开放、大发展的时

期，表现在报刊业中，就是报刊经营集团的出现和市场型报刊大发展。在1999年年底统计的2038种报纸中，绝大部分都是这种面向市场、自负盈亏的大众化报刊，不过，它们的政治与社会影响力与党的政治性大报还不能相提并论。

在邓小平“南巡”鼓励改革开放精神的指导下，中国南部的广东省广州市党委机关报《广州日报》率先成立了《广州日报》报业集团，开始了市场化竞争的大动作。随后，广东省委党报《南风日报》也迅速成立了《南风日报》社报业集团。在南方省份的带领下，从1996年到2000年五年间，中国大陆出现了上海的新民文汇报业集团、《解放日报》报业集团；北京的《光明日报》报业集团、《经济日报》报业集团等十五个大型报业集团。这些报业集团以少数的政治型大报为宣传核心，以众多的下属各类小报为经济依托，全面进行市场拓展、整合新闻资源、打造新闻宣传品牌形成了当今中国报刊业发展的一道亮丽的风景线。

总体来讲，中国当今报刊事业所形成的“二元化”格局，乃是中国共产党在政治上实行保守严控政策、而在经济上则实行改革开放政策的反映与结果，不受读者欢迎的政治型大报接受党委宣传部的指令控制，进行政治性的“正面宣传”，并在财政上受到同一报系内其它小报盈利的支持；而在大报保护下的同系统小报则在不冒犯政治风险的前提下全力进行市场化运作，同当地或、外来的其它报业集团的竞争者进行市场竞争。这两类报刊事业今后发展的前途和相互影响及互动的方式都有待于中国未来的发展变数。